

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이바지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훈장'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훈장'은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



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ce@

나고음작 '페르시아 블루...' 바움작품상 수상

홍보 전문회사(주) 바움커뮤니케이션스가 주관하는 제11회 바움작품상 수상자로 나고음 시인(사진)의 시집 '페르시아 블루, 꿈을 꾸는 흙'이 선정됐다.

나고음 시인은 2002년 등단할 당시 이미 15년 이상의 도자기 작가로서의 이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도자기라는 화두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움작품상은 김광림 시인의 시 정신과 아시아시인회의의 문학 정신을 이어받아 시상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5시, 문화과 창작에서 개최하는 '제231회 숲속의 시인학교'가 펼쳐지는 '고성군 금강산콘도'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ik1@



롯데주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롯데주류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심리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FSSC 22000 인증을 진행해왔고, 2017년에 완공한 충주 2공장의 FSSC 22000 인증을 최근 획득하며, 7개의 전 공장(강릉, 군산, 경산, 부평, 청주, 충주 1, 2공장)의 인증을 마쳤다.

롯데주류가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심리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FSSC 22000 인증을 진행해왔고, 2017년에 완공한 충주 2공장의 FSSC 22000 인증을 최근 획득하며, 7개의 전 공장(강릉, 군산, 경산, 부평, 청주, 충주 1, 2공장)의 인증을 마쳤다.

/롯데주류



GC녹십자, 사랑의 헌혈 통해 생명 나눔 실천
GC녹십자는 최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동참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사업장에서 연간 12번 실시되는 '사랑의 헌혈'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GC녹십자 임직원이 무더위 속에서도 헌혈에 적극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나섰다. GC녹십자는 최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동참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사업장에서 연간 12번 실시되는 '사랑의 헌혈'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GC녹십자



넷마블문화재단 '게임통교육 가족캠프' 성료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10일~11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소재 블루비스타에서 열린 '제 2회 넷마블게임통교육 가족캠프(이하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자녀와 부모로 이루어진 120명의 참가자는 이번 2회 '가족캠프'에서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1박 2일동안 체험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10일~11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소재 블루비스타에서 열린 '제 2회 넷마블게임통교육 가족캠프(이하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자녀와 부모로 이루어진 120명의 참가자는 이번 2회 '가족캠프'에서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1박 2일동안 체험했다.

/넷마블문화재단

韓 비엔날레의 유별난 외국인 사랑



홍경안 역
시시일각

2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을 비엔날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2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엔날레로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꼽는다. 국제적 담론생성 측면에선 제 기능을 못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규모 및 예산 등에서 덩치가 작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 기획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하다는 것도 닮은꼴이다. 광주비엔날레는 2008년 이후 줄곧 외국인 큐레이터를 빼놓지 않았다. 부산비엔날레 역시 2016년을 제외하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나라 큐레이터가 전시감독을 맡았다. 대구사진비엔날레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포함해 이들 비엔날레 또한 2020년 개최 예정인 행사에도 이미 외국인 기획자들을 감독으로 확정된 상태다.

동시대성이 강조되고 세계가 초단위로 연결되는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 예술 감독을 맡느냐는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2022년 카셀도큐멘타 전시 총감독으로 선정된 '루앙무과'는 인도네시아 콜렉티브 그룹이고,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마저 외국 작가를 내세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단, 역대를 넘나드는 세급까지 쥐어주며 극진하게 모셔오는 이상 성과 여부는 따

져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외국인 감독들이 내놓은 성적표는 불품없었다. 대체로 동시대미술의 흐름과 예술담론의 틀을 제시하지 못했고, 실험적인 방법론을 통해 현대미술에 관한 의심할 수 없는 세계 문화예술의 각축장을 만드는 것에도 실패했다. 동시대예술의 혁신과 도전, 새로운 담론형성과 방향성 제시 측면 역시 희미했다. 그야말로 무색무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역동적 파괴괴뢰의 비엔날레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적 내 갈등을 유발하거나 편협한 전시를 꾸리는 등 문제만 만든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을 지낸 프랑스의 '올리비에 케플랭'이다. 당시 그는 출품작가 77명 중 26명을 자신과 동일한 국적의 작가로 채워 비엔날레를 '프랑스 작가전'으로 둔갑시켰다. 케플랭은 이 전시로 '보이콧'까지 선언된 전시 감독 불공정 선임 논란과 더불어 프랑스 작가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0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자신이 전시 감독을 맡은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도 단 한명의 한국작가도 초대하지 않아 입질에 올랐다. 광주와 30%가량이나 작가가 겹쳤지만 그는 "한국 작가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지오니의 한국 작가 배제는 한국의 비엔날레가 국제적 큐레이터들의 '보따리 장사판'이 되고 있다

는 지적에 불을 지폈다.

한국의 여러 비엔날레가 외국인 기획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만 하고 있다는 시선은 단지 곡해로 치부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광주비엔날레 감독을 거쳐 베니스비엔날레로 직행했다. '오쿠이 엔위저'도 그랬다.

이외, 2014년 광주비엔날레 감독을 역임한 '제시가 모건' 등, 여타 외국인 감독들 역시 한국의 비엔날레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문화권력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이들이 세계적인 디렉터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한국의 비엔날레가 배경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역대 감독 모두가 자신의 경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술 감독이 됐다."는 '마리아 린드' 2016 광주비엔날레 감독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누구나 '하랄트 제만' 내지는 '퐁튀스 홀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시간 어떤 비엔날레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낸 외국인 기획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 비엔날레들의 유별난 외국인 사랑은 기이하다. 전시의 질을 담보하는 최선의 카드인지 의심할만한 역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맹목적 구애는 꽤나 가난해 보인다. 행여 문화사대주의와 근거 없는 선민사상 아래 한국 기획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스스로 폄하한 결과는 아닌지 모르겠다.

/미술평론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자녀 글로벌 세계관 형성 지원

우리금융, 다문화자녀 문화체험 싱가포르 명소서 역사·문화 탐방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박7일간 싱가포르에서 '2019년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지난 6월 참여신청을 받아 부모의 출신국가, 글로벌 인재능력 및 신청사유 등을 고려해 선발된 중·고등학생 다문화자녀 20명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학장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체험단은 아시아 대표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의 명소를 찾아 역사·문화·생태를 탐방했으며,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6박7일간 싱가포르에서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우리금융그룹

싱가포르 지점 견학을 통해 싱가포르 및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체험단은 또 올해 아시아 대학 순위 2위, 세계 대학 순위 11위에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한인 학생회 대학생과 싱가포르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상호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한국문화 동아리인 KCIG(Korean Cultural Interest Group)와 한국에서부터 준비한 탈춤, 태권도, 케이팝 댄스 등의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홍민경 기자 hong93@

인사

◆고용노동부 ◇3급 승진 △ 산재보상정책과 장 주평식 △ 화학사고예방과장 김충모 ◇ 4급 승진 △ 홍보기획팀 양영봉 △ 감사담당관실 한인권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재훈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수연 △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 고용서비스정책과 이지윤 △ 고용보험기획과 유수경 △ 노사협력정책과 조선열 △ 노사관계법제과 강승현 △ 산

재예방정책과 김진숙 △ 산업안전과 피해근 △ 운영지원과 전대환 △ 고용노동부 구현경 △ 고용노동부 김준호 △ 고용노동부 박지혜

부음

▲원춘자씨 별세, 황성대성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4일 갑천추모공원, 033-343-1444
▲김중국(전 대한전선 임원)씨 별세, 김원태(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김형태씨 부친상,

정은주씨 시부상, 이병기(마일스톤에스앤티(주)대표)씨 장인상 = 13일 오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파주 조안공원. 02-3410-6915

▲온태산 씨 별세, 이창호(티브로드 기념방송 취재부장) 씨 장인상 = 12일 오후 10시 40분,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6시 40분. 010-9061-2469

▲원춘자씨 별세, 박희봉(DB자산운용 상품전략본부장)씨 모친상 = 12일, 황성대성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4일. 033-343-1444